

전북 농식품 청년기업 육성 정책 간담회

바이오진흥원, 전북자치도·도의회와 지역 정착 위한 정책 논의의 장 마련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27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도의원과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 바이오진흥원 이은미 원장 및 농식품 청년기업 등 도내 농식품 분야 주요 인사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청년 창업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에 따라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논의했다.

또한, 청년기업들은 2세 경영인인 두순푸드 구경한 본부장, 다복농식품 정운성 실장, 청년창업가인 맑은물



F&B 김지향 대표, 보부상바이오팜 백하현 대표, 이리당 이남호 대표, 맥락 정승연 대표, 상상 최종익 대표 등 7명의 청년기업인이 참석하여 기업의 소리를 전했다.

전북 지역은 인구 소멸 문제와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식품 청년창업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북도의회-전북자치도-바이오진흥원-농식품 청년기업 간 논의를 거쳐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은 "전북 청년들이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며, "농식품산업이 청년들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농업 및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북 청년들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창업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진흥원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기술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바이오 및 농식품 분야에서 혁신적인 창업을 촉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년 창업자들이 지역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100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을 전하며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성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농협은 오수관촌농협서 영농인력 수급 안정과 지역 농업경제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형계절근로자 조기 정착 교육을 실시했다.

공공형계절근로자 조기 정착 교육

전북농협, 조기정착·생산성 제고... 외국인 체류 문제 예방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지난 26일 오수관촌농협(조합장 정철석)에서 영농인력 수급 안정과 지역 농업경제 발전을 위한 일환으로 공공형계절근로자 조기 정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와 우리나라 영농 환경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한국 문화 예절 교육, 기초 한국어 교육과 더불어 근로과정에서 야기되는 안전, 범죄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농협뿐만 아니라 임실군청,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분야별 전문가를 투입해 의무교육, 화재안전교육, 범죄예방교육 등을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만성적인 농촌인력 부족문제해결의 일환으로 지난해 11개소로 운영되던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올해 14개소로 확대해 추후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조기 정착 교육 및 안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동진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 직불사업 신청' 성공적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는(지사장 하인호) 지난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지역농업인의 큰 관심속에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영농경력 이 10년 이상이고 65세이상 84세이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최대 월 200만원(4ha 기준), 최장 10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올해 김제지역에 31ha의 은퇴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현재까지 10ha(32%)를 추진하여 고공 비행중에 있다.

동진지사는 사업이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아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사업대상자 발굴을 위해 전 통시장 등 길거리 홍보, 관내 이장단 회의 참석, 마을회관 방문, 농업인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하인호 지사장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노후소득 안정화와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자세한 문의사항은 동진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제=박노태 기자

전국 동시다발 대형 산불... LX, 드론으로 재난 피해조사 지원

재난 현장에서 신속한 피해 조사·복구 지원 정보 확보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 산림 피해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며 피해가 커지고 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위한 드론 활용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는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영상처리센터'를 LX공간정보연구원(완주군)에 구축했다. 이 드론영



드론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재난 안전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왔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한 드론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지난해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영상처리센터'를 LX공간정보연구원(완주군)에 구축했다. 이 드론영

/김욱기 기자

상처리센터는 재난지역 5km 기준으로 종전 30일 걸리던 입체영상을 1일 내 만들고 토지정보와 연계하여 산림, 건축물, 비닐하우스 등 피해 규모를 정부·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LX 드론 활용 시스템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피해복구를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7월 특별재난지역(충북 영동군, 경북 영양군, 충남 태안군)으로 선포된 지역 등을 비롯해 재난지역에 드론팀을 급파하여 피해 지역(16.6km)을 촬영하고 피해조사를 지원했다. 과거 집중호우(충북 괴산, 예천 지역)·산불(울진·강원도 영월 지역과 강원도 인제)·지진(경주 지진) 등에서도 드론을 활용하여 피해면적을 산정해왔다.

/김욱기 기자

새만금청, 제1차 새만금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 개최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7일에 새만금 사업지역 내 투자유치 담당기관들과 함께 2025년 제1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조흥남 차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새만금청 관련 부서장,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 사업단장, 새만금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참석하여 1분기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2분기 활동계획과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특히 1분기에 추진 한 △맞춤형 기



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 지원센터를 기업지원단으로 확대·개편, △2건의 투자협약과 롱비오리온 등과의 입주계약을 체결, △중합보세 구역을 새만금산단 1·2공구에서 5·6

공구까지 확대 등 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했다.

앞으로는 기업 지원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독창적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간 간 상호협력력을 강화하고, 개발시 행정외의 협상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수변도시에 필수적이고 차별화된 정주여건 조성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 새만금 전역에 걸쳐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환경청, 수도서비스 위한 일반수도사업자 실태점검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전북 14개 시·군과 수자원공사 전북권을 대상으로 수도 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운영인력 전문성 확보, 정수장 및 수도관망 등 유지관리 실태, 유수율 개선 등 3개 항목이며, 환경청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 등과 합동점검을 거쳐 환경부 종합심사를 통해 최종평가가 이뤄진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 현장평가를 통해 상수도 위기대응 능력, 수도시설 개선실적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직결된 주요항목을 점검하며, 미흡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태점검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사업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시설·운영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욱기 기자

중기중앙회, '행복한 중기씨' 26기 발대식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오후 2시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학생 서포터즈 '행복한 중기씨' 26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위촉장 수여에 이어 서포터즈 활동 소개순으로 진행됐으며, 서로의 활동 포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에 선발된 8명의 서포터즈는 7월까지 약 4개월간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콘텐츠 제작 △중소기업 관련 행사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중기중앙회는 서포터즈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이해연수 △동영상 제작 △저작권 바로알기 등의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한 중기씨'는 지난 2010년에 발족해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로, 숨겨진 가치를 찾아 중소기업에 '바로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